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회의록

- 일 시 : 2024. 2. 16.(금) 10:00~11:00
- 장 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2층 대강당
- 참 석 : 100여명(주재자, 발표자, 시민 방청객)
- 주재자 : 김병록(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발표자
 - 홍건숙 : 「사랑으로 노인전문요양원」 대표
 - 허유진 : 「유한회사 다올문화세상」 대표
 - 강준혁 : 「노무법인 너울」 대표 공인노무사
- 내 용
 -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추진경과 설명
 - 의정활동비 잠정액(월 110만원→ 월 150만원) 찬·반 발표, 상호토론, 방청인 의견수렴 등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 사회를 맡은 기획팀장 박승용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우리 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최 취지에 맞게 참석해 주신 시민들의 참여 속에 원활하게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공청회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 시간 및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주재해 주실 김병록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오늘 발표는 찬성 두 분과 반대 한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찬성의견 발표해주실 **홍건숙** 「사랑으로 노인전문요양원」 대표님이십니다.

허유진 「유한회사 다올문화세상」 대표님이십니다.

반대 의견 발표해주실 **강준혁** 「노무법인 너울」 대표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공청회는 김병록 위원장님 주재로 진행하겠습니다.

○ 주재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주재를 맡은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병록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20여년 만에 조정되는 것인 만큼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오늘 공청회가 목포시 의정활동비 잠정결정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 및 그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비로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2006년 2월에 지방의회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수 개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 형태의 비용으로 기초의원은 110만원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20년간 정액 지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대통령 주재의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 범위를 인상하는 것으로 광역 의원의 경우 월 150만 원 이내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50만 원 인상됐고 기초의원의 경우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4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이 변동됐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고 지난 2024년 1월 16일 1차 회의와 1월 29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비 잠정결정액 및 주민의견 수렴 방법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물가가 56% 이상 상승했음에도 의정활동비는 같은 기간 계속 동결됐던 점과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 끝에 목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결정하고,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월 23일 금요일 3차 심의회를 개최, 의정활동비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의회로 전달하며, 시의회에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결정된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 및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의정활동비 잠정 결정액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의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한 분당 발표 시간은 5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찬성 의견을 말씀해주실 홍건숙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1(홍건숙)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제12대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의정활동비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의정비심의위원회 김병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의원들은 1991년도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 활동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지방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나는 업무만 하더라도 조례 제정, 예산 심의 그리고 목포시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도 해야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한 업무만 하더라도 이렇게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 다 제쳐두고 예산만 한 번 봐볼까요? 여러분, 목포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보니 9천 8백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예산을 잘 심의해야 우리 목포시가 발전하는 거고, 그래야 우리 목포시민들의 삶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심의를 잘하려면 연구를 해야합니다. 좋은 연구는 수준 높은 자료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발로 뛰어서 정보를 얻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얻는 정보들도 물론 있겠지만 서점에서 가서 책도 사서 보고,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도 읽어 봐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2003년도에 전국 모든 시군이 110만 원으로 지급을 한 이래로 20년 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의정활동비는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성이 많이 부족해요. 정부의 법 개정 취지도 ‘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많이 주자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현실화가 아닌 배려의 수준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열심히 하셨지만 갈수록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11대의 경우 연평균 9건 정도였는데, 12대로 넘어오면서 연평균 22.5개를 제정하셨더라고요. 제8회 지방선거 이후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열심히 목포시를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들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올려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자

예, 찬성의 의견을 발표해주신 홍건숙 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숙 님은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는 지방 의원들에게 어떤 책임성과 전문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젊은 또 유능한 인재가 의회에

진출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보수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의원 활동을 안정적으로 또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수가 현실화돼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유진께서 또 찬성의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발표자 2(허유진)

안녕하세요. 홍건숙님에 이어 찬성의견을 발표하게 된 허유진입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라 제가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빼고 다른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약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1년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자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봐보니, ‘전문성이 부족하다’를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전체에서 35%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 민원 해결만이 아니죠. 한 발 더 나아가 정책 개발과 같은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의원들의 업무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발판도 필요하겠지만,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수당입니다. 목포시에서 나눠주신 자료의 ‘의정활동비 현황’을 보면 목포시의 경우 월 31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이 금액을 시급으로 나눠보면

8,625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요. 지방의회 의원들 주·야간, 평일·주말 할 것 없이 의정활동 하십니다. 무보수는 면했지만 거의 명예직이나 다름이 없죠.

의원분들 중에서 겸직하고 계신 분들은 관찮으실 수도 있지만,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현직 의원님들 기준으로 찾아보니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약 60%로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앞선 발표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12대 의원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목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를 의회로 진입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고요. 그 시작을 이번 의정활동비 150만원 인상으로부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자

예. 허유진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진님도 앞서 홍건축님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자치제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실제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하시면서 의원들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용의 어떤 현실화가 요구된다. 현재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주어지는 비용 자체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에 적절한 보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찬성 의견을 들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혁님께서 반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발표자 3(강준혁)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에서 노무사 생활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좀 떨리는 마음이고 저도 제 소신껏 한번 준비한 바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반대 측 패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가 반대하는 건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허용하는 최대 폭인 150만 원으로의 인상을 한꺼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당위성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굳이 구태여 반대 측 패널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청회 자리는 인상 자체를 두고 150만 원 인상이 타당한지를 논하는 자리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의 보수를 삭감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의 결과로 인상될 보수는 일종의 비가역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다시 삭감이 없는 모습이므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신중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지자체 재정 능력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에 적혀있었던 그리고 오늘도 나왔었던 내용 중에 계속된 동결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로의 유능한 인재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 ‘네 가지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능력 측면에서 저는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목포시에 허리가 갑자기 휠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 계속된 동결이 있었다고 했는데 시의회 의원의 보수는 의정 활동비만 있는 게 아니라 월정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의 경우에 뭐 물가상승률대로 다 오르지 않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감안해서 최근 3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 보수가 동결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안정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점이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제가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안건 처리 현황에 있어서 목포시
시의회 의원분들께서는 기존에 의정 활동비만을 가지시고도 아주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계속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특히 현재 기수의 경우 안건의 비율이나 감사의
횟수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제가 제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건 처리 현황에
있어서는 전남 도에 거의 항상 상회하는 평균에 상회하는 활동 실적을 내신 걸로
보여져 굳이 추가적으로 인상을 최대폭으로 해서 더욱 뭔가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될 정도로 의원분들께서 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진출 유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들이 있는데, 일단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22명의 총원이 항상 잘 유지되고 있고
굉장히 유능한 인재분들께서 모든 자리를 잘 채우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필요성으로 제시하기에는 약간 모자람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제가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점은 절대 아니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인상이 아마도 비가역적인
인상이 될 것인 만큼 단계적인 인상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점차 구해나가는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예. 강준혁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혁님은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150까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재정
측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정비 중에 월정수당은 인상돼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안정된 의정활동이라든지, 또는 유능한 인재를 유도하기 위한
진출 유도를 하기 위해 ‘인상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곧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상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상한선이 150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을 밝혀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발표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상호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건숙 발표자께서 강준혁 허유진 두분 발표자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1(홍건숙)

지금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목표는 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실까요?

○ 발표자 3(강준혁)

네, 2023년 기준 18.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표자 1(홍건숙)

네, 감사합니다.

○ 주재자

혹시 또 허유진 발표자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2(허유진)

어차피 저희도 목포시에 이제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기에 개개인의 의견을 잘 준비하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강준혁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네 가지 고려사항 중에 네 번째 이제 유능한 인재에 지금 추가적인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저희 목포시 의원님들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의회 의정활동 수준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대가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고 연령대도 젊은 층과 융화가 된다면 우리 ‘목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혹시 이에 대해서 강준혁 발표자께서 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 발표자 3(강준혁)

없습니다.

○ 주재자

네. 질의 사항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발표자 상호 간에 상호 토론을 마치고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간단한 본인 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민 방청객 1

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 사무국장 김00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자리 앉아있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을까? 150만 원은 거의 인상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고 발표자 중에서 12대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를 말한 것이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3년 10월까지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아까 22.5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개인당 22.5개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발표자1 (홍건숙)

아니요. 의원 전체 발의 건수 중 연평균 개수입니다.

○ 시민 방청객 1

에 그렇죠. 의회 의원은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우리 의원 중에서 의장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지 않으면 21명이 발의를 하는데 3건에서 7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건에서 7건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보면 거의 복지입니다. 21명 22명이지만 21명의 의원이 일 년 넘게 22.5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5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는 인상에 대해서 강준혁 발표자 의견처럼 인상은 하되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민들 어느 누구를 한 사람을 잡고 “어떻습니까? 하고 50

만 원 올려준다고 합니다.”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실까요? 일전에 목포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시민 의견 조사를 했을 때 의회 의원들에 대한 청렴도와 같이 모든 것을 볼 때 엄청나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거에 50만 원 인상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혁 발표자님처럼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되는 그런 방안을 저도 찬성하고 싶습니다.

○ 주재자

에 감사합니다. 김00 시민 방청객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목포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차원을 조례 발의 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지금 일시에 인상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계신다면 손을 들고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방청객 2

안녕하세요. 저는 이로동에 사는 김00입니다.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진출을 위해서라도 인상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인상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 신안은 벌써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포가 신안하고 그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도 완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오히려 올려드리고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신가 안 하신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선거 때 투표로써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재자

에 감사합니다. 이로동에서 오신 김00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인근 지역에서 150만 원 인상으로 의결하고 있어서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실까요?

○ 시민 방청객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주동에 살고있는 정00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듣고 우리 목포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은 제가 이해하기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하는 모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기존보다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과거보다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20년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 시의원 의정 활동비를 일정 수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예 감사합니다. 부주동의 정00님께서도 인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의 재정상에 문제가 없다면, 의정활동을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방청객 4

이 공청회가 목포시민을 위한 공청회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1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이전에 내가 본인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저는 옥암동 이00이라는 사람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거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안내된 인상(안)이 11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모든 상황은 시민과의 어느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올리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시민과의 대화인 만큼 거기에 조금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분 같이 단계적으로 하든가 이 금액을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절충안이 어느 부분에서 4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으로 한다든가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에 감사합니다. 옥암동에서 오신 이00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단계적 인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충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하시자 그런 말씀이시죠.

○ 시민 방청객 4

여기 시민들하고 의정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 좀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서로 절충안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 주재자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오늘 공청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3일에 개최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어느 한쪽의 의견에 맞다. 틀리다 그걸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